

로컬에서 더 행복한 청년들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로컬에서 만난 청년들

지난해 연구년을 맞아 지역에 머물며 한 달을 살아보는 ‘로컬 한달살이’를 이어왔다.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기 위해서였다.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에서, 사람 많은 신도시가 아닌 텅 빈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가 아닌 농산어촌 시골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100개 이상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에 올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3월에 하동 악양면 시골마을에 와서 보름을 살았고, 뜨거운 여름 7월에 다시 와서 보름을 마저 살았다. 8월 하순부터 한 달은 목포 원도심 만호동에서, 10월에는 전주 원도심 중노송동에서 한 달을 살았다. 올해 1월 중순에는 강릉으로 옮겨가 마지막 한달살이를 하고 왔다.

며칠씩 머물면서 지역을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며 로컬을 새롭게 경험해 본 곳들도 많다. 경상남도 남해와 창원, 전라남도 순천·장흥·함평·무안·나주와 신안군의 여러 섬들, 경상북도 상주·문경·영천·칠곡을 다녀왔고, 충청남도 아산, 충청북도 진천, 제주 원도심과 서귀포 월평마을·추자도, 강원도 동해, 대전 어은동, 전라북도 순창·임실·진안에서도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다.

청년들도 많았다. 하동에서, 영천에서 그리고 목포와 나주에서 만난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간략히 옮기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로컬은 아

주 넓고 또 깊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그렇게 다채로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청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

하동의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젊은 PD들

부산과 창원 등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시골의 작은 회사에 취업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 바다까지 가장 빼어난 자연을 두루 가진 하동의 로컬 콘텐츠를 멋지게 살린 여행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공정여행협동조합 ‘놀루와’에서 일하고 있는 양지영·전윤환 두 PD를 하동 한달살이 중에 만났다.

양 PD는 창원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 졸업 후 산청에서 3년을 보낸 뒤 2019년 3월 하동에 왔다. PD가 하는 일이 무어냐고 물으니 “피 터지고 디지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답하며 웃는다. 기획과 실행, 현장 막노동, 디자인까지 못하는 게 없이 뭐든 다하는 사람이란다.

청년 로컬살이 5년 차에게 행복한지 물으니 행복하단다. 가장 행복한 이유로 집을 꼽는데, 실은 집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하동살이 2년 4개월 동안 이사를 세 번 했다니 알 만하다. 운 좋게도 얼마 전 화개계곡 입구 언덕 위의 예쁜 단독주택 전세를 구해 이사했는데, 맘에 쏙 드는 집이 생겨 무척 행복하단다. 대지가 100평이 넘고 건물도 30평 이상인 저택을 1억 원이 안 되는 전세로 얻었고, 전세금의 90%를 청년 대출 지원을 받아 한 달 주거비는 대출이자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다.

놀루와에서 하는 일을 물었다. 대표와 실장 그리고 두 명의 청년 PD가 함께 일하는 놀루와는 아주 작은 회사여서 직장이라기보다 공동체가 가깝다고 한다. 일을 매개로 하는 생활공동체 느낌이란다. 일과 삶이 구분되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좋은 면도 많다고 한다. 청년의 시골살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의 문제일 텐데, 외로울 겨를 없이 일이 많은 데다 주변 어른들이 가족처럼 보살펴 줘 가족처럼 공동체처럼 지낸다. 자신은 고향의식이 없는 세대로 살아왔는데 이곳에서 ‘고향’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놀루와의 막내 전윤환 PD는 인터뷰 당시 입사 5개월 차 새내기 PD였다. 태권도 4단의 스포츠맨, 선교사의 꿈을 지닌 독실한 개신교 신자,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청년이다. 대학 졸업 후 채용사이트에서 놀루와를 알게 됐고, 블로그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놀루와를 ‘열공’한 뒤 치열한 경쟁을 뚫고 PD로 채용됐다.

시골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길래 이유를 물었다. 가장 큰 행복은 역시 집이란다. 악양면 하신흥마을의 시골집(대지 70평, 건물 20평 규모)을 월세 25만 원(보증금 200만 원)에 얻어 살고 있는데,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비 지출을 줄인 대신 그 돈을 시골집을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 집에 사는 게 아주 행복해요. 대학생 때 살던 원룸과 달리 여긴 나만의 공간이고,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원룸에 살 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는데, 여긴 이웃과 친하게 지냅니다. 옆집에 홀로 사시는 85세 할머니와 친구가 됐어요. 출근할 때 아침 인사 나누고, 퇴근할 때 인사 나눠요. 식사했는지 물어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세요. 할머니에게 하루 동안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싶네요. 매일 말동무가 돼 주시는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시골살이의 불편한 점도 물었다. “불편한 점도 아주 많지요.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마트는 동네 슈퍼 수준, 영화를 보려면 읍내 알프스하동에 가야 하고, CGV는 차 타고 광양까지 가야 합니다. 불편함은 많지만 불편함을 모두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생활은 불편하지만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행복한 곳입니다.”

부산을 떠나 하동에 와서 느낀 하동의 특별함도 물었다. “며칠 전 친구가 하동에 와서 함께 지낸 뒤 제게 그랬어요. ‘하동이 하동했다!’ 친구 말처럼 하동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특별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하동만의 특별함, 하동사람들만의 특별함, 놀루와만의 특별함, 나만의 특별함이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전 PD의 꿈은 무엇일까? “위로예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이죠.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 바라봐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것이 진정

한 위로일 겁니다. 나도 아래로 가서, 힘들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요. 놀루와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경북 유일의
수제 초콜릿 가게,
영천의 산과 보롬**

제주 우도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되고 5년을 함께 일했던 산과 보롬. ‘산’은 김강산 씨의 별칭이고, 바람을 뜻하는 제주도 말 ‘보롬’은 김은경 씨의 별칭이다.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 몸을 상한 보롬은 초콜릿을 끊고 금단 증세로 힘들어하다가 몸에 좋은 건강한 초콜릿을 직접 만들 생각을 했다. 카카오 열매에서 초콜릿 바까지 전 과정을 거쳐 초콜릿을 만드는 ‘빈투바’ 초콜릿 전문점을 창업하기 위해 두 사람은 제주 빈투바 전문점에서 3년 공부를 한 뒤 경상북도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시청년시골과건제’ 2기 (2019)에 참여해 2020년 4월 보롬의 고향 대구와 가까운 영천시에서 시립도서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 경북 지역 유일의 수제 초콜릿 전문점 ‘산과 보롬’을 열었다.

산과 보롬은 입만 즐거운 초콜릿이 아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공정무역 방식으로 직수입한 카카오 원두를 발효하고 불에 볶는 ‘로스팅’ 과정을 거친 뒤, ‘그라인딩’과 ‘위노잉’ 과정을 통해 껍질을 깨고 분리한다. 잘게 쪼개진 카카오 님스를 50여 시간 땀물에는 ‘콘칭’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초콜릿 바를 비롯해 님스, 푸딩, 아몬드, 로쉐, 카카오차 등 다양한 초콜릿 제품이 만들어진다. 초콜릿에는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재도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한다.

산과 보롬은 영천에서 책 읽기 모임도 이끌고 있고, 영천의 청년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도 활발히 하고 있다. 책 쓰기 모임과 영화 모임도 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와 초콜릿 교육에도 열심이다. 안타깝게도 2021년 8월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영천 지역 청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도와줘 추석 무렵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와 창업한 여섯 청년들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 방식대로!” 서울을 떠난 여섯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창업한 회사 ‘유후컴퍼니’의 캐치프레이즈다. 로컬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채워주되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한다는 아주 멋진 비즈니스 전략이다. 목포 한 달살이 중이던 지난해 9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센터장과 함께 유후컴퍼니 서동효 본부장을 찾아가 만났다. 목포역에서 아주 가까운 로데오광장에 면한 상가 건물 1층 ‘오쇼잉’이란 이름의 배달 전문 커피숍에서였다.

목포에 와서 창업한 지 3년 차를 맞는다고 했다. 목포에서 지낸 3년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물었다. “목포에 와서 살면서 제가 서울에서 많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이 참으면서 살았고, 또 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기선 훨씬 덜 힘들게 살고 있고, 제가 가진 힘을 더 좋은 곳에 쓰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며 삽니다. 이런 삶이 만족스러워 주변에도 추천하고 있어요.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목포에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물었더니 집 얘기부터 한다. “서울에서는 집이 제 인생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집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결혼을 결심하면서 더욱 절망적이었지요. 그런데 목포에 와서 달라졌어요. 서울 집값의 7~8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졌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서울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어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내뱉는 감탄사 ‘유후’에서 이름을 따와 유후컴퍼니로 이름 지은 여섯 청년들의 회사 영업장은 현재 세 곳이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사진관 ‘유후스튜디오’인데, 목포에 뿌리를 둔 ‘보해양조’가 지원해 조성한 ‘오쇼잉 청년빌리지’ 골목길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과 2층을 쓰고 있다. 그다음 문을 연 곳이 배달 전문 커피숍 ‘오쇼잉’이고, 이 건물 2층에 한창 준비 중인 미디어 체험 키즈카페도 곧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는 3개 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또 주민들이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 비즈니스는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여섯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먹고살 만큼 버는지 물었더니 월평균 250만~3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다며 만족한다고 했다.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훨씬 적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많은데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으니, 비즈니스 아이템을 잘 찾아내기만 한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보다 훨씬 유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로컬 아닐까. 수도권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로컬창업은 더욱 늘게 될 것이다.

전주에서 나주로, 강릉에서 나주로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나비스(NABIS)’ 뉴스레터의 커버스토리 원고 청탁을 받고 앞서 게재된 커버스토리 글들을 찾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2021년 8월에 실린 제33호에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의 글 ‘지역 창업 커뮤니티를 주목하라’는 글에서 나주 르네상스를 꿈꾸는 전주 사람과, 강릉에서 나주로 온 청년들 이야기를 읽고는 바로 페이스북을 검색해 친구 신청을 했고 연결이 됐다. 나주에 와서 복합문화공간 ‘39-17 마중’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사람 남우진 대표와 전화 연락까지 이어졌고, 지난 2월 1박 2일 일정으로 나주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

전주 사람이 나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경위가 궁금해 물었다. “2015년에 나주 원도심의 건물을 매입하려는 선배를 따라 나주에 왔다가 전혀 몰랐던 나주의 매력을 발견하고 반했지요. 선배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져 제가 나주 정씨 종택이던 목서원과 난파정과 뒤뜰까지 2,500평을 매입하게 됐고, 어찌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잡목이 우거진 채 버려진 공간들을 고치고 되살리다 보니 폐가로 남아 있던 경주 최씨 종택과 광산 김씨 종택까지 매입하게 됐고, 4,000여 평 넓은 땅을 갖게 됐지요. 2017년에 쌀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로 오픈했고, 목서원도 같은 해 게스트하우스로 되살렸습니다.”

‘39-17 마중’이란 이름이 궁금했다. “마중한다,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나주에서 할 일도 ‘마중’인 것 같아요. 나주는 멋진 곳입니다.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나주를 발견하도록 맞이하는 곳,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서원은 1939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2017년에 되살아

났으니 39-17을 붙여 '39-17 마중'이 된 것이고요.”

남우진 대표와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마중 이곳 뿐만 아니라 나주읍성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 꿈입니다. 4,000여 평 넓은 공간 마중은 저희 부부 둘이 쓰기엔 너무 큰 땅입니다. 이곳을 청년창업의 플랫폼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마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 생태계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신나는 문화발전소’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우진 대표의 꿈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꿈꾸는 플랫폼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강릉에서 나주 원도심으로 와서 2018년에 ‘골목청년’으로 시작한 뒤, 2020년에는 ‘니나노플래닝’을 창업한 노건휘·임재환 대표도 만났다. 노 대표는 나주의 매력으로 한적함과 조용함을 꼽았고, 임 대표는 개발이 안 되는 게 신기한 동네라며 강릉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 그리고 아주 풍부한 스토리까지 가진 곳인데도 이를 못 살리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답했다. 보석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보석인 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단다. 직원은 모두 5명이고 월급도 중소기업 평균 수준인 2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회사 경영철학도 물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다 3~5년 사이에 독립하도록 권합니다. 각자 성장한 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아주 멋지지 않겠어요?”

로컬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로컬에서 만난 청년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물론 로컬살이의 불편한 점이나 불리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컬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 이미 그 기회를 발견하고 많은 청년이 로컬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로컬을 선택한 청년들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면 좋겠다. 그들을 보며 더 많은 청년이 로컬로 올 수 있게.

니나노플래닝의 노건휘·임재환 대표 둘 다 음악을 좋아한다. 임 대표가 직접 ‘이 한적한 거리’라는 노래를 작사·작곡했다고 하길래 뮤직비디오를 찾아 감상했다.

어느 방송국 일기예보 담당 기자의 밝지 않은 목소리를 지적하는 PD, 친구들에게 나주 가서 힐링 좀 하자며 문자를 보내는 기자, 드디어 옛 나주역에 도착한 주인공을 반기는 듯 노래가 흐른다.

“이 한적한 거리, 우린 그러보네,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꿈꾸는 것을.” 갑자기 등장한 아저씨는 밥은 먹었는지 물으며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신다. 나주 서성문과 향교길을 밝은 표정으로 걷는 청년들. 노래는 계속 흐른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저 우리의 발자취일 뿐, 중요한 건 여기에, 이미 소중한 우리의 얘기가 있다는 걸.” 어두운 목소리로 일기예보를 했던 주인공이 밝은 목소리로 다시 일기예보를 한다.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 청년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일상을 통해 생기 있는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는 맑고 따뜻합니다.” 예보는 끝나고 노래는 계속 이어진다. “이 한적한 거리, 우린 그러보네,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꿈꾸는 것을, 모두가 손을 잡고서 다 같이 바라보는, 너와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웃는 이곳을.”

참고문헌

- 1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놀투와 양지영 PD.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9wK8RSY-0jQ>
- 2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놀투와 전용환 PD.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GKdJ7s_zIDY
- 3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산과 보름.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_i-qZGK5EZQ
- 4 로컬에서 행복한 사람 - 유후컴퍼니 서동효 본부장.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OrstnrKyFGg&tc=44s>
- 5 나주 르네상스를 꿈꾸는 전주사람 - 남우진, 기애자 부부.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JI2YUmS3YzQ>
- 6 강릉에서 나주로 온 청년들 - 니나노플레닝 노건휘, 임재환.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g3Ulg0z2TT4>
- 7 MV 한적한 거리, 향교길 프로젝트.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6cW4CjdZtU>